

임실군, 일자리 정책 평가 '최우수'

고용률 상승 등 주요 지표 개선 두각... 기관 표창·인센티브 확보·일자리 창출 동력 '기대'

임실군이 전라북도 2022년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일자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뤄냈다.

군은 전라북도 2022년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과 7,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임실군은 올해 초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경감을 맞았다.

평가는 인구수·제조업체 수·고용 환경 등을 고려해 2개 그룹으로 구분해 이루어졌으며, 고용률·취업지원실적·일자리창출노력도·홍보 및 네트

워크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은 고용률 상승과 구직자 등록 증가 등 주요 지표 개선이 두각을 보였다. 지역 유관기관과 '일자리 정책 추진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계획-실행-평가 추진체계를 확립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여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청년 창업영 영농기반 임차 지원사업을 통해 임차료 경감 및 현장지원단을 구축하여 관내 청년 창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기여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임실·오수지역의 특화 산업인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을 전국에서 최초로 개장해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국 최초로 토지수용 없이 보상 협의 100%를 달성하여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사업이다 보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분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태수 임실군수 권한대행은 "우리군이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임실지역 특색을 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동력을 높여 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야간 안심귀갓길 조성 위해 민관 협력

순창군-순창경찰서-군민참여단, 여성친화도시 조성 앞장

순창군이 순창경찰서, 군민참여단과 협력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한 순창의 야간안심귀갓길 조성에 앞장서면서 밤길 여성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지역 정책 수립·집행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군은 2016년도부터 육천안심귀갓길(순창터미널~강류로)과 중앙안심귀갓길(순창터미널~중앙로), 터미널길(순창터미널 뒤쪽 주택가), 순창초 후문길(순창초 후문~수양맨션 옆 도로) 등 4구역을 안심귀갓길로 지정해 CCTV와 로고젝터, 스피커지붕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다. 올해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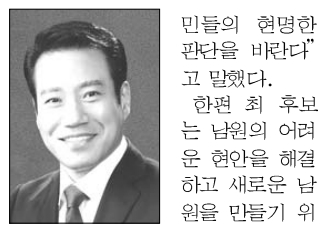
에는 야간안심귀갓길로 순창여중 주변을 추가 지정해 일부 285M 구간에 76개의 스피커지붕을 설치완료했다.

야간안심귀갓길은 순창경찰서 112순찰차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군민참여단이 지역사회 현장 모니터링 등 빈틈없는 여성 밤길 안전지킴이로 군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후보, 후보 등록 마쳐

더불어민주당 최경식 남원시장후보가 13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남원시장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거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갈어은 길을 보면 그 사람의 걸어갈 길을 알 수 있다"며 "말과 구호가 아닌 어떤 가치를 실현해왔고 어떤 혁신적인 삶을 살아왔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남원시



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는 남원의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남원을 만들기 위해 ▲세대교체로 새로운 희망을! ▲반듯한 남원! 유능한 시장!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남원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경식·도·시의원 후보, 원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최경식 남원시장 후보와 도·시의원 후보들은 지난 12일 원팀 간담회를 갖고 6·1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 예비후보에게 공천장을, 장종한(전, 남원시의장)씨에게 남원 정당선거사무소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주 위원장은 "어머니의 고향 남원과의 인연을 소개하

며 더불어민주당의 DNA는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밝히며, "엄격한 경쟁을 통한 도덕성 검증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으로 모든 후보들이 하나가 되어 원팀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종한 소장은 "모든 후보들이 힘을 합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라며, "해당행위 발생 시에는 도당과 중앙당에 긴급징계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직하게 일하는 순창군정 실현할 것"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

무소속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순창 100년 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10대 공약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순창군민만 보고 '정직하게 일하는 순창군정 실현'이라는 목표로 군수에 당선되면 탕평인사와 '군정 소통 혁신 추진단' 신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예비후보는 공약 최우선으로 '공정한 탕평인사'를 꼽았다.

그는 "공직사회의 공정한 탕평인사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의 위치에서 차별 없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복지를 대폭 확대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순창 군정 소통 혁신추진단'을 신설해 군정의 낮은 관행과 선례를 대폭 혁신하고, 미래 지향적인 전라과



제 발굴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군

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분야 및 계층별 지역별 전체 군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제고를 약속했다.

또 '사업평가위원회'를 도입해 군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지속 관리해 다음 연도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는 특히, 수의계약 몰아주기 병폐의 강력한 근절책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한 '사업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최영일 예비후보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민의 복리에 이용되는 공공시설물이 기능을 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유지관리 및 예산 누수를 막아 군 재정에 안정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민 역량 집결해 시정 펼칠 것"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

무소속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는 남원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시민의 역량을 집결하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12일 오전 남원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치고



"당선되어 시민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인사드릴 것"을 다짐하며, "국회의원, 전북 도의원 시절을 포함한 40여년의 정계 활동시간의 대

부분을 남원에 대한 애정과 고민으로 보냈으며 단 하루의 시간도 하루루 보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원시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하고 화합과 소통으로 남원발전에 기여하는 유능하고 일 맛 나는 남원시정을 만들 것"이라며, 선거로 인해 분열된 시민들과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500여명이 참여하는 'yes 남원 재도와 플랜'으로 대화합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지역 소식통

남원의료원, 입원진료 등 운영 정상화 홍보 실시

남원의료원은 5월 2일자로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어 읍·면·동사무소 방문, 이·통장을 통한 마을 방송 진행,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코로나19 환자입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실을 운영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전념, 이후 2년여 간의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입원진료 운영 재개 및 모든 업무 정상 운영에 돌입하기 위해 진료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박주영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남원의료원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면, 정상진료 재개 후에도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활용 신속 진단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가 고추, 토마토 등에 발생한 바이러스를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현장진단키트를 운영하여 조기방제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고추, 토마토 등에 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원예작물 바이러스병은 방제약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발생 시 이병주(바이러스병 발생주)를 제거해야만 정상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수확량과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바이러스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바이러스 진단키트 13종 1,81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농가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단키트는 작물 종류 3~4방울만으로도 현장에서 즉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